

가짜 주인공의 서사적 변주에 관한 연구*

김재용**

— <차 례> —

1. 서론
2. 민담과 민담계 고전소설 속의 가짜 주인공
3. <심청전>에서의 가짜 주인공
4. <춘향전>에서의 가짜 주인공 - <오뎃세우스>와 관련하여
5.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서사문학에 등장하는 가짜 주인공이 서사 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민담에서 가짜 주인공은 주인공을 위기에 빠트리고 그의 공을 가로채는 단순한 역할을 맡지만, 그의 행위로 서사적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민담의 구조를 계승한 <김원전>에서도 여전히 진행된다. 그러나 판소리계 소설에 오면, 양상이 달라진다. <심청전>의 뽕덕어미는 심봉사를 골계적 인물로 변모시킨다. <춘향전>에서 변학도는 초반의 가짜 주인공에서 적대자로 성격을 탈바꿈한다. 적대자와 대적하기 위해 이도령은 민담적 주인공이 수행했던 행로를 따라간다. 즉 힘센 적대자와 맞서기 위해 변신하거나, 새로운 주술적 무기의 사용법을 익히며,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과 유사한 행위를 보인다. 특히 이도령의 귀환은 오뎃세우스의 귀환과 매우 유사한 서사적 흐름을 가지고 있어, 이야기의 발생에 인간심성의 보편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인다.

[주제어] 가짜 주인공, 심청전, 춘향전, 김원전, 오뎃세우스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 수행됨.

** 원광대학교

1. 서론

가짜 주인공은 프롭이 민담에 등장하는 인물의 기능에 따른 인물항을 거론하면서 만든 개념이다¹⁾. 탐색의 주인공이나 악한처럼 서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도 않지만, 진짜 주인공은 조력자나 증여자와 함께 민담에서 주요한 인물항으로 설정된 것이다. 프롭의 인물항 체계에서 악한은 탈취자이며 주인공은 탐색을 통해 탈취된 대상을 되찾아 온다. 탈취된 대상은 인물이기도 하고, 특별한 물건 혹은 보배인데, 그것은 공동체 전체의 운명과 연관되어 있다. 그 탐색의 과정에서 조력자나 증여자의 역할은 눈부시다. 악한이 있는 장소를 알지 못하는 주인공에게 길을 알려주기도 하려니와 악한과의 싸움에서 필요한 주술적 도구와 그 사용법을 전수하기도 한다. 하지만, 탐색 과정에서 진짜 주인공에게 특별히 부여된 서사적 임무는 없다. 주인공의 종자로서 혹은 우연히 길에서 만나 주인공의 탐색에 합류하게 되지만, 악당과의 처절한 투쟁에 일익을 담당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염탐을 하는 일도 없다. 아예 탐색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롭이 이 인물항을 설정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프롭의 체계를 재정리한 그레마스는 행위항(actant)의 범주²⁾에서 진짜 주인공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가 설정한 인물 범주에는 적대자(opponent)만이 있을 뿐이다. 진짜 주인공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대자의 범주에 포함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으로 대칭적인 행위항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추정할 수도 있으나, 어쨌든 그레마스는 진짜 주인공의 존재를 그의 체계에서 지웠다. 크게 보면 진짜 주인공

1) V. Propp, *Morphology of the Folktales*,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1958, p. 60.

2) A.J. Greimas, *Structural Semantics*, trans. by Daniel McDowell, Lincoln, Univ. of Nebraska Press, 1966. p. 207.

은 적대자와 같이 주인공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둘을 한데 묶어 보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비중 있는 서사적 책무도 없이 등장했다가 곧 사라지는 이 인물은 민담의 서사 전개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일회의 조연이지만, 그로 인해 서사의 반전과 더불어 지연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그의 서사적 비중은 정당하다. 주인공이 상실한 가치를 되찾기 위해 수많은 모험과 투쟁을 거쳐 이룬 성공을 가짜 주인공은 단 한 번의 행위로 그것을 무력화시켜 주인공을 다시 위기의 구렁텅이에 빠트린다. 실로 가공할 힘이다. 주인공은 다시 어려운 귀환 길을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프롭이 가짜 주인공을 주인공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은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가짜 주인공의 다양한 변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가짜 주인공은 여러 가지 페르소나를 쓰고 등장한다. 서사에 등장하는 환경도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는 공통점은 주인공이 획득하거나 획득할 가치를 자신이 탈취하려는 데에 있으며, 그 행위는 집단 전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공 한 사람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탈취의 방법도 다르다. 속임수, 억압, 혹은 도주 등으로 다양하며, 그 행위들은 주인공을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하지만 귀환에 성공한 주인공은 헤어졌던 인물과 재회한다. 따라서 귀환은 단순히 분리되었던 물리적인 공간에로의 복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재결합의 의미도 포함한다.

가짜 주인공에 의해 순조롭게 진행되던 서사진행이 요동친다. 그 격랑을 헤쳐 나오는 과정에서 주인공의 새로운 면모가 드러나며, 이야기의 가치가 새롭게 정의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주인공의 복귀 과정에서 가짜 주인공의등장이 어떤 서사적 변개를 야기하는가에 대해 고구하려 한다. <지하국대적체치설화>

와 <김원전>, <심청전>, <춘향전>, 그리고 <오뎃세이아>에 등장하는 가짜 주인공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분석하기로 한다. 세 부류로 나눈다고 하여 유형의 설정을 예상하는 것은 아니다. 또 민담에서 보이는 가짜 주인공의 성격이 고전소설에서도 그대로 드러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민담에서의 단순한 성격이 다른 성격과 결합하면서 서사적 환경을 어떻게 변모시켰는가를 보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장편의 복잡한 서사시와 소설의 구조가 사실은 민담의 단순한 구조의 변형이라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논의가 확산되어 산만한 느낌이다. 하지만 두 논의는 하나의 범주에 둘 수 있다고 보아,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2. 민담과 민담계 고전소설 속의 가짜 주인공

가장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가짜 주인공의 존재는 민담에서 보인다. 손진태의 『한국민족설화의 연구』에 실린 <지하국대적제치설화>는 가짜 주인공의 존재와 그 서사적 중요성에 대해 명확하게 증언한다. 여기에 두 편의 한국 이야기와 한 편의 몽고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한국의 두 이야기의 진행 과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³⁾.

	대구 지방 이야기	춘천 지방 이야기
①	과거를 보러 서울로 가는 한량의 등장	
②	부자의 딸이 대적에게 납치되다	아귀귀신이 세 공주를 납치하다
③	부자가 딸을 찾아올 영웅을 찾다	왕이 공주를 구출할 영웅을 찾다
④	한량이 부자의 요청을 수락하다	무신이 왕의 명령을 수락하다
⑤	한량이 길을 떠나다	무신이 종자들과 길을 떠나다

3) 자료는 손진태, 『한국민족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06-116면 참조.

⑥	세 명의 초립동을 만나 결의형제를 맺다	
⑦	다리 부러진 까치를 치료해준다	
⑧	까치가 대적의 거처를 알려준다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아귀의 소굴을 알려준다
⑨	한량이 줄을 타고 지하 굴에 들다	무신이 팽주리를 타고 지하 굴에 들다
⑩	한량이 납치된 딸을 만나다	무신이 납치된 공주를 만나다
⑪	딸이 한량에게 동삼수를 먹여 힘을 기르게 하다	공주가 아귀의 비밀을 탐지하다
⑫	한량이 칼로 대적을 죽이다	공주가 아귀의 옆구리에 붙은 비늘을 떼다 - 아귀의 죽음
⑬	한량이 납치된 여인들을 데리고 지하 굴에서 나오다	공주들이 지하 굴에서 나오다
⑭	한량과 세 초립동이 자신들이 구출된 여인들 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다	종자들이 바위로 굴 입구를 막아 무신을 지하 굴에 감금하다
⑮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말 한 필을 준다
⑯		무신이 말을 타고 지하 굴에서 나오다
⑰		왕이 종자의 우두머리와 공주를 결혼시키려 하다
⑱		무신이 나타나 자신이 진정한 영웅임을 알리다
⑲		왕이 종자들의 목을 베다
⑳		무사와 막내공주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다

⑬번까지 두 이야기의 흐름은 비슷하게 전개된다. 탐색을 위해 종자들
을 대동하는 것도 같다. 조력이 이루어지는 환경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주인공이 조력자의 안내로 지하굴에 드는 것도 같다. 결정적인 차이는 ⑭
번 이야기 단위에서다. 대구지방의 이야기는 부자의 딸을 구출한 한량이
세 초립동과 더불어 무사히 집으로 귀환한 다음,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산다고 했다. 대구지방의 이야기에서 가짜 주인공은 없다. 반면에 춘천지
방의 이야기는 ⑭번 이야기 단위에서 가짜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
는 주인공을 따라다닐 뿐 탐색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했다는 정보는 없다.

대구지방 이야기에서는 세 초립동이 번갈아가며 지하 굴에 들기는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그들이 한 일은 주인공과 부자의 딸을 굴 밖으로 끌어낸 일이다. 반면에 춘천지방 이야기에서 종자들이 한 일이란 주인공이 나오지 못하도록 굴 입구를 바위로 막는 일뿐이다. 이 단순한 기능으로 인해, 주인공은 귀환을 위한 새로운 모험을 모색해야 한다. 다행히 백발노인의 도움으로 굴 밖으로 탈출하고 이내 귀환에 성공한다. 그 시간만큼 서사의 길이는 길어진 것이다. 대구지방의 이야기가 하나의 갈등과 그 해결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었다면, 춘천지방의 이야기는 두 개의 갈등과 그 해결로 이루어지는 두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는 서사 체계를 갖게 된다. 가짜 주인공이 행하는 하나의 행위가 서사적 흐름의 방향을 바꾼 것이다.

조력자(증여자 포함)와 가짜 주인공은 비록 보조인물이기는 하나, 위기를 넘기고 또 위기를 불러오는 즉, 서사 진행의 흐름을 반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실상 이야기의 진행을 바꾸는 일은 이들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괴가 있는 곳을 모르는 주인공에게 그곳에 가는 길을 알려주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신비한 무기와 칼의 사용과 비밀을 탐지하여 요괴의 퇴치에 결정적 일을 뒷받침하는 일도 조력자의 몫이다. 가짜 주인공도 반전의 주체이기는 마찬가지이지만, 그의 행위는 주인공을 위기에 빠트리는 부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그는 처음엔 조력자의 역할을 자임하며 주인공과 합류한다. 그러나, 요괴를 퇴치한 후에 그는 주인공의 공을 가로채기 위해 배반을 하여, 이야기를 새로운 방향으로 전전시킨다. 적대자는 이야기의 초반에 등장하여, 한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지만, 가짜 주인공은 이야기의 중반 혹은 끝부분에 등장하여 주인공의 귀환을 방해한다. 위기에 빠진 주인공이 다시 회생하여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하고, 이른바 ‘서사의 지연 현상’이 발

생하게 된다. 이것은 이야기 진행에서 중대한 변곡점이다. 없어도 이야기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니나, 배반 행위는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몽고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주인공 알툰은 납치당한 누이동생을 찾아 세 명의 동료와 함께 길을 나선다. 네 사람은 힘을 합쳐 각자의 누이동생을 구하기는 했으나, 세 동료의 배신으로 알툰은 지하굴에 갇힌다. 왜 동료들이 알툰을 죽이려했는가 하는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예상되는 가치를 탈취하는 장면도 없다. 그런 점에서 가짜 주인공으로서의 변형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⁴⁾.

<김원전>은 <지하국대적제치설화>의 이야기 진행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소설이 민담에서 출발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다. 소재도 민담처럼 공주의 납치가 상실로 제시되고, 김원이 아귀를 퇴치할 영웅으로 파견되어 모험에 나서게 된다. <김원전>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 ① 김규 내외는 발원을 하여 자식을 접지 받다.
- ② 알을 낳다.
- ③ 십년 후에 알에서 김원이 태어나다
- ④ 세 공주가 납치되다.
- ⑤ 왕이 공주를 구출해 올 영웅을 찾다.
- ⑥ 김원이 부장 김현충 등과 함께 파견되다.
- ⑦ 김원이 지하굴에 내려가 공주를 만나다.
- ⑧ 김원이 공주의 도움을 받아 아귀를 물리치다.
- ⑨ 공주는 지상으로 나갔으나, 강문추가 배신하다.
- ⑩ 강문추는 배신이 탄로나 죽임을 당하다.
- ⑪ 지하에 갇힌 김원은 용자를 구하고, 그 보은으로 용궁에 가다.

4) 앞의 책, 116-130면 참조.

- ⑫ 용궁에서 용녀와 결혼하고, 신비한 연적을 얻어 지상으로 오다.
- ⑬ 연적을 탐낸 점주에 의해 김원이 살해당하다.
- ⑭ 용녀의 기지로 김원이 재생하다.
- ⑮ 궁으로 돌아온 김원이 공주들과 결혼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다.

위의 진행에서 ⑨의 단락에 가짜 주인공의 배신이 나오며, 여기에서 이야기는 새롭게 전개된다. 김현충의 배반으로 인해 김원의 운명은 다시 하락하게 되고, 서사는 길어진다. 김현충은 김원의 공을 가로채려는 의도를 보인다. 민담에서는 서술자의 진술로 처리되었지만, 소설에 들어와서 가짜 주인공의 심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제 김원이 지혈에 들어가 큰 공을 이루고 공주를 모셔 내었으니 경사에 들어가면 일등 공신이 될 것이오, 나는 아될 공이 없으니 차라리 원을 지혈에 나오지 못하여 죽게 하고 저의 공을 빼앗음만 같지 못하다⁵⁾

강문추는 김원을 죽게 하여 그의 공을 빼앗으려 음모를 꾸미고 실행한다. 물론 이 사실은 왕이 친국하여 강문추를 능지처참함으로써 사태는 일단 종결된다. 가짜 주인공은 죽음으로써 서사의 문면에서 사라지지만, 굴속에 갇힌 김원은 귀환을 위해 적지 않은 모험을 수행해야 한다. 서사적 지연이 발생하고 새로운 사건이 추가되면서 서사 전개가 다채롭게 된다. 김원은 역시 지하 굴에 갇힌 용자를 구출하고, 용궁을 방문한다. 은혜를 배풀고 보은을 받는 일이다. 그리고 용녀와 결혼하여 지상계로 이동한다. 하지만 지상계에서도 귀환은 여의치가 않다고 했다. 점주가 연적을 노려 김원을 살해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죽음은 곧바로 삶으로 돌아와야 할

5) <김원전>, 『한국고전문학전집』 16,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5, 85면.

죽음이다. 왜냐하면, 이야기의 초반에 하늘에서 내려온 선동이 김원의 나이 60이 되었을 때 하늘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천상계와 지상계를 보이는 중세기적 질서를 고수하는 소설들에서 지상계의 운명은 늘 천상계의 예정에 따라 맞추어 있는 것이다. 마침내 모험을 끝내고 돌아온 김원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천수를 누리다 죽는다. 귀환길에서 예기치 못한 죽음과 재생의 이야기와 더불어 펼쳐지는 다양한 모험은 가짜 주인공이 만들어낸 서사적 기제인 셈이다.

3. <심청전>에서의 가짜 주인공

가짜 주인공이 민담에 등장하는 방식은 비교적 단순하다. 민담과 그 구조를 계승한 <김원전>에서 가짜 주인공은 단순히 공을 빼앗기 위해 주인공 공을 굴속에 가둔다. 하지만 <심청전>에서의 뽕덕어미는 전혀 다른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다. 뽕덕어미도 심봉사의 재산을 탈취하려는 점에서는 민담의 가짜 주인공과 닮았지만, 일정 부분 심봉사의 조력자 구실도 한다. 선행과 악행의 사이를 줄타기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한다. 그리하여 <심청전>에 등장하는 뽕덕어미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다. 완판본은 뽕덕어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때 그 마을에 서방질 일쫓 잘하여 밤낮없이 흘레하는 개갈이 눈이 별게서 다니는 뽕덕어미가 심봉사의 돈과 곡식이 많이 있는 줄을 알고 자원하여 첩이 되어 살았는데, 이년의 입버르장이가 또한 보지 버릇과 같아서 한시반때도 놀지 아니하려고 하는 년이었다. 양식 주고 떡 사먹기, 배를 주어 돈을 받아 술 사먹기, 정자 밑에 낮잠자기, 이웃집에 밥 부치기 마을 사람더러 욕설하기, 일꾼들과 싸우기, 술 취하여 한밤중에 와 달석 울음 울기. 빈 담뱃

대 손에 들고 보는 대로 담배 청하기, 총각 유인하기, 온갖 악증을 다 겪하였으되⁶⁾.

위의 인용을 보면, 뽕덕어미는 안하무인의 인물이다. 먹고 살기 위해 심봉사의 첩으로 들어왔으나, 남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자신의 욕심대로 반윤리적이며 파괴적인 행동을 자행한다. 그 점에서 그녀는 악인이다. 하지만 독자는 그녀에게 적개심이나 분노를 보이지 않는다. 악인이기는 하지만, ‘치밀하고 계획적인 악인이 아니고,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여 일을 그르치는 그런 악인⁷⁾’이다. 또 그녀는 심봉사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골계적 성격을 십분 드러내게 하는 역할도 수행하여, 작품의 전편을 지배했던 비장함을 이완시키는, 곧 판소리 연행에서 보이는 긴장과 이완의 반복에서 이완의 한 축을 톡톡히 담당하는 인물⁸⁾로 자리매김한다. 그렇다면 그녀는 민담에서 공주를 납치하여 한 집단의 안정을 파괴하는 악한의 역할과는 전혀 다른 층위에 있다. 그러기에 그녀를 ‘악인이라 하는 것은 통념에 따르는 관습적인 규정⁹⁾’이라는 진술은 설득력이 있다. 한편 뽕덕어미가 보여주는 서민성과 회화성이 탈양반문화적 가치를 보이면서 그녀의 행위가 ‘심봉사를 더 절망의 극한으로 내몰아 개인의 감동을 극적으로 강화하려는 것¹⁰⁾’이라는 견해도 서사의 목적상으로 주목할 만하다. 뽕덕어미는 악인이면서 악인으로 인식되지도 않고, 골계적인 성격을 가지고 독자의 웃음을 유발시킨다. <홍보전>에서 놀부의 심술도 뽕덕어미와 같은

6) 정하영 역주, 완판본 <심청전>, 정하영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 13,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5. 163면.

7) 정하영, 『심청전에 나타난 악인상』, 『심청전 연구』, 최동현, 유명대 편, 태학사, 369면.

8) 위의 논문, 364면.

9) 조동일, 『심청전에 나타난 비장과 골계』, 주)3의 책, 299면.

10) 정양, 『뽕덕어미 소고』, 위의 책, 390면.

골계적인 성격을 갖는다. 놀부의 심술로 타인이 치명상을 입거나 삶이 달라지는 경우는 없다. 놀부의 심술은 그것으로 그만이다. 그 독특함으로 인해 뽕떡어미를 서사문학의 인물 유형 중에 어디에 편입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느 인물항에 귀속시키는 것을 넘어 뽕떡어미의 독특한 성격을 다시 조명하고 그로 인해 서사적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기 위해 필요하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뽕떡어미의 행위를 분석하기로 하자.

뽕떡어미는 이야기 처음부터 등장하여 서사적 사건에 간접한 인물이 아니라, 이야기 중반에 갑자기 등장한다. 그렇다고 그녀가 등장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경관계 <심청전>에서 그녀의 존재는 찾아볼 수 없다. 굳이 그녀가 없어도 경관본의 이야기 진행에 차질이 일지는 않는다. 그녀 없이도 심봉사는 황성에 갈 수 있었으며, 눈을 뜨는 일에도 지장은 없다. 하지만 그녀의 등장은 이야기를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가면서, 전체 작품 주제론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우선 뽕떡어미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가지고 처음으로 들어오기는 했으나, 눈 먼 심봉사의 조력자 역할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 그녀가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기는 했으나, 심봉사를 봉양했으며¹¹⁾, 성적인 즐거움도 주었다고 한다¹²⁾. 타향으로 가서 살지는 심봉사의 뜻을 존중하여 떠돌이 생활도 마다하지 않는다. 맹인 잔치하는 황성으로 가지는 심봉사의 요청에도 두 말 없이 따라 나선다.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히고, 남에게는 반윤리적인 행위를 하며, 심봉사의 재산을 탕진하기는

11) 뽕떡어미가 심봉사를 봉양하는 말은 다음 인용에서 일부 보인다. “봉사님, 여태 잡수신 게 무엇이오? 식전마다 해장하신다고 죽값이 여든두 냥이요, 저렇게 갑갑하다니까” 주)2의 책, 163면.

12) 성적 대상으로서의 뽕떡어미의 존재는 다음과 서술되어 있다. “심봉사는 여러 해 주린 판이라, 그 중에 동침하는 즐거움은 있어 아무런 줄 모르코” 앞의 책, 163면.

했으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기꺼이 수행한 셈이다. 그녀가 들어온 후, 비탄에 젖어 타루비를 껴안고 슬피 우는 심봉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그의 생활이 바뀐 것이다. 그리고 황성의 맹인 잔치를 참석하러 여행길에 나선다. 황성길 여행에서 주인공은 심봉사다. 그는 황성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탐색의 길에 나선다. 그곳에 맹인잔치라는 기대할 만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가야하는지 모르는 처지에서 조력자인 뽕덕어미와 함께 나선다. 민담에서 주인공과 종자의 탐색 여행과 방불하다 하겠다.

하지만 뽕덕어미가 황성 가는 길에 돈 많은 황노인을 만나 이제 아무런 쓸모없는 심봉사를 버렸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조력자가 아니고, 가짜 주인공으로 역할을 변신한다. 민담에서 가짜 주인공이 공을 세우고 귀환하는 주인공에게 변심의 칼을 겨누는 것과 정확히 대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반 인생살이에서 비탄과 한숨으로 지냈던 생의 반환점을 돌아 비록 딸을 잃기는 했으나 그런대로 만족스러운 생을 살아가던 그의 허를 찔러 좌절하게 만든 것은 민담 속의 가짜 주인공의 역할과 같다. 황성으로의 여행은 장차 심봉사가 딸을 만나기 위한 것이므로, 모녀의 상봉은 민담의 주인공이 귀환하여 여인과 재결합하는 일과 동등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조력자의 배신 이후 민담 속의 주인공이 고난과 위기를 맞는데 반해, 심봉사는 전혀 다른 궤적을 그린다. 맹인이 혼자 황성길을 가는데 고난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상황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 양상은 이러하다. 먼저 심봉사는 목욕하다 옷을 도둑맞으면서 고난을 겪지만, 곧 무릉태수의 도움을 받는다. 도움을 받기 위해 무릉태수가 요구한 호소문을 말하는데, 별거벗은 상태와 양반 후예로서의 의젓함은 상황의 불일치를 보인다. 훗날 대낮에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정상적이라면 별거벗은 자신을 감추어야 하지만, 심봉사는 오히려 당당하다. 물론 자신이 볼 수 없기에 상황을 왜곡하여 그런 일이 일어났으나,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난 일탈과 불일

치가 웃음을 유발시키기에 족하다. 이후 길을 가다가 여인네들과 농염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방이를 쫓아달라는 여인네들의 부탁을 듣고 ‘옹제, 양반네 집 종이 아니면 상놈의 아낙네로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놀러먹기나 해 보리라¹³⁾’한다.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여인들이니, 놀려도 좋다는 심사는 심봉사의 야비함을 보이는 대목이지만, 나이 들고 앞을 못 보는 이가 젊은 아낙네들을 상대로 ‘놀러먹기를 해 보리라’는 욕망을 표출하는 것에서 야비함이 아니라 늙은 맹인의 안쓰러움이 엿보인다. 이어서 보이는 심봉사의 음담패설은 자신이 쾌남아임을 은근히 자랑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황성에 도착하여 안씨 맹인과의 잠자리는 의젓하고 품위 있는 양반 후예로서의 위상과 전혀 다르다. 이것은 비장과 골계의 균형을 잡기 위한 서사자들의 의도가 개입되었나 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민담에서 주인공이 보였던 진지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보인다 하겠다. 이러한 변모는 물론 뽕덕어미의 도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본에 따라 그녀가 처벌을 받는 이야기가 있다¹⁴⁾. 그러나 뽕덕어미의 처벌은 의미가 없다. 그녀의 악행에 대한 인과응보적 성격의 처벌이지만, 그것은 고소설의 전통을 단순히 이어받아 삽입한 대목으로, 오히려 그 처벌은 뽕덕어미의 골계적 성격을 악으로 단순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뽕덕어미의 등장으로 <심청전>의 서사 진행은 크게 반전된다. 초반의 비장과 엄숙에서 벗어나 골계적 성격의 서사로 전이되면서 삶의 진솔함이 노정된다. 재산이 축난 것을 알면서도 뽕덕어미와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참는 심봉사의 행위,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심봉사에게 접

13) 앞의 책, 193면.

14) 한글 필사본 고소설자료총서 28권 오성사, 1986 소제의 <심청전>의 418면에서 “잡아들여 죄를 물었다”고 하였으며, 같은 책 <심청가라>의 262면에서도 죄를 묻는 장면이 있다.

근했다가 다시 도망치는 뽕덕어미, 그리고 심봉사가 황성길에서 만난 여인들과 벌이는 농염한 성적인 대화와 성적 관계 등은 일상인들 삶의 현실적 문맥을 보여준다. 이러한 서사적 반전은 뽕덕어미라는 가짜 주인공의 등장으로 가능했다.

4. <춘향전>에서의 가짜 주인공 -<오뎃세우스>와 관련하여

<춘향전>은 암행어사 설화나 열녀 설화 등을 근원설화로 하여 탄생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소재론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구조적 관점에서도 민담의 구조와 상동성을 보여 주목된다. 우선 <지하국대적체치설화>와 <춘향전>은 탐색담의 구조를 포함하고 있다. 즉 주인공이 공동체에서 벗어나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여 일정한 가치를 획득한 후에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다. 민담의 주인공은 투쟁을 통해 상실한 것을 되찾는 것과 달리, 이도령은 서울에서 장원급제를 통해 획득한 권력을 힘으로 하여 상대를 제압한다. 하지만 원래 있었던 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 잃었거나 없었던 가치를 획득한 점은 같고, 그것이 후에 결혼이라는 사건으로 연결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권력은 민담의 주인공이 증여자의 시험을 거쳐 획득하는 주구와 같은 기능을 갖는다. 또 민담의 주인공이 주구의 도움으로 적대자를 물리치고 납치된 여인을 구하듯, 이도령은 암행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춘향을 구하고 변학도를 징치한다. 재결합의 대상이 여인이고, 그 여인은 주인공과 결연할 대상이라는 점도 같다. 차이도 있다. 납치자가 있는 장소가 <지하국대적체치설화>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춘향전>에서는 알려져 있는 점이다. 하지만, 서사구조의 흐름은 탐색담의 전통 안에 분명히 있다. 탐색의 주인공

으로서의 이도령의 위상은 민담에서처럼 그대로 지속된다.

이도령과 춘향의 결합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춘향전>이 독자들의 애호를 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 작품이 대중적 인기를 얻고, 한국의 대표적 고전작품으로 평가받는 데에는 변학도의 존재가 부각되어야 한다. 그가 없었다면, 춘향의 절개나 저항도 없었을 것이다.

변학도는 도입 전부터 춘향을 관노로 알고 있었다. 관노는 자신의 휘하에 있으므로 변학도는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춘향을 수청 들게 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것은 그의 판단 하에서는 당연했다. 그는 속임수를 사용하여 춘향에게 수청 들 것을 명령한 것이 아니다. 합법적으로 그녀를 취하려 했다. 그러나 춘향의 수청 거부로 일이 어그러진다. 춘향이 자신은 기생이 아니므로 수청을 들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거기에 덧붙여 춘향은 자신이 이도령과 정혼한 사이라고 주장한다. 양반의 자제가 기생과 정혼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믿는 변학도는 '이도령은 경성 사대부의 자제로서 명문귀족 사위가 되었으니 일시 사랑으로 잠깐 기생처럼 대하던 너를 조금이나 생각하겠느냐'¹⁵⁾고 회유한다. 민담이나 <심청전>의 뽕덕어미처럼 속임수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이에게 돌아갈 가치를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점에서 그는 가짜 주인공의 범주에 든다. 하지만 이러한 팽팽한 대립은 춘향이 '사람의 첩이 되어 지아비를 배반하고 가정을 버리는 법이 벼슬하는 관장님네 나라를 망치고 임금을 등지는 것 같사오니 처분대로 하옵소서!'¹⁶⁾라는 공격으로 파국을 맞는다. 변학도를 단순히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인물을 넘어, 나라를 망치고 임금을 등지는 반역자의 위치로 끌고 간 것이다. 이 말에 분노한 변학도는 '관장을 조롱하는 죄는 계서울에 울로 써 있고, 관장을 거역하는 죄는 엄한 형벌

15) 설성경 역주, <춘향전>, 『한국고전문학전집 12, 고대민족문화연구원, 1995, 137면.

16) 앞의 책, 139면.

로 귀양 보내느니라¹⁷⁾고 하여 춘향을 감옥에 가둔다. 춘향을 감금함으로써 변학도는 단순 탈취자인 가짜 주인공에서 ‘나라를 망치고 임금을 등지른’ 일을 함으로써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적대자의 페르소나를 갖는다.

가짜 주인공에서 적대자로 성격이 변질되면서, 이야기의 가치에도 변동이 생긴다. 한 여인을 두고 두 남성이 경쟁하는 통속적인 삼각관계의 이야기가 부당한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이나 완고한 신분 질서에 대한 이의 제기로 확산되면서 당대의 지배적 가치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변모되었다. 이러한 변모는 민담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며, 조선조의 영웅소설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현상이다. 영웅소설에서 적대자를 퇴치하고 금의 환향하는 영웅에게 현실적인 부귀와 공명이 주어진다. 물론 그의 공을 가로채려는 가짜 주인공의 존재는 보이지 않기에 귀환에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된다. 그 점에서 <춘향전>은 독보적인 위상을 갖는다.

변학도는 춘향을 억압하고 있고, 이도령은 탐색자로서 그 여인을 구해야 한다. 이도령은 증여자나 조력자의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과거에 급제함으로써 상대방과 대적할 힘을 갖게 되는데, 과거급제는 민담의 주인공이 증여자로부터 얻는 주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동 관계를 볼 수 있다.

민담 속의 주인공 ≡ 이도령

민담 속의 가짜 주인공/ 적대자 ≡ 변학도

민담 속의 주구 ≡ 과거급제

민담 속의 납치자가 주인공의 탐색에 의해 제거되어 무대에서 일찍 사라지는 반면, <춘향전>에서는 납치자가 이야기의 중반에 나타나 영웅을

17) 앞의 책, 139면.

기다리는 형국이다. 민담 속의 납치자는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영웅이 온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춘향전>에서 변학도는 자신의 적대자가 이도령임을 알고 있으나, 그가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온전히 양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한 사고 방식에서 이도령이 춘향을 위해 돌아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었던 이도령의 귀환은 변학도에 의해 장애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방향 수정이 요청된다. 그리하여 영웅은 가짜 주인공의 무기였던 속임수를 사용하여 강력한 힘을 가진 적대자와 맞선다. 민담이나 영웅소설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서사적 환경이다. 갑자기 등장한 적대자로 말미암아 영웅의 행로가 달라진 것이다. 지하계와 같은 비현실적인 공간에 있는 적대자와 대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웅은 자신이 살았던 현실적인 공간으로 모험을 시도한다. 이도령에게 남원은 낮은 땅이 아니다. 그런 이유로 자신의 모험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도 있다. 반면에 그는 쉽게 적대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 그리하여 변장이 요구된다. 마치 민담에서 주인공이 적대자의 궁으로 잠입하기 위해 수박으로 변신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이러한 서사진행은 이미 기원전에 창작되었던 고대 그리스의 오딧세우스의 귀환 이야기와 흡사하기에, 두 작품은 좋은 비교 대상이 된다.¹⁸⁾

18) 고대 그리스의 오딧세우스 이야기를 논의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이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하지만, 오딧세우스 이야기에서도 춘향전과 같은 서사 전개가 있어 일반문학적 관점에서 다루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야기 줄거리의 비슷함을 밝히는 일이므로, 작가나 문체 혹은 이본 등의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중적으로 알려진 오딧세우스 이야기의 번역본을 임의로 하나 골라 <춘향전>과 비교할 것이다. 자료는 호메로스, 『일리아스/오딧세이아』 김병익 역, 삼성출판사, 1976이다. 원전은 Samuel Butler(tran.) : The Odyssey, Washington Square Press, 1966 이다. 비교 과정에서 오딧세우스 이야기는 분량이 많아 인용하지 않고 서사의 장만 제시한다. 두 작품의 서사적 상동성은 이야기의 기원에 관한 논의에서

오딧세우스와 이도령의 귀환에서 비교가 시작될 부분은 프롭의 체계에서 23번부터이다. 두 2작품 사이의 비교되는 부분을 더 명료하게 보이기 위해 두 작품의 실상을 11개의 모티프로 나누어 정리하기로 한다.

#1. 영웅은 남몰래 집이나 근처의 다른 지역에 도착한다.

위의 진행은 ‘오딧세우스가 이타카에 도착하여 노인으로 변신한다.’(오딧세이아 13장)와 ‘이도령이 자신이 신분을 감추고 남원에 온다’(춘향전)으로 변형된다. 이도령은 거지로 변장한다¹⁹⁾ 오딧세우스를 변장시킨 이는 여신 아테나이다. 아테나는 자신이 아끼는 그를 늙고 힘없는 노인으로 변모시킨다.

#2. 사태를 파악하다.

변장하여 남몰래 목적하는 곳의 부근에 도착한 주인공은 이내 자신이 없는 사이에 벌어진 사건을 알게 된다. 알게 되는 과정은 매우 정교하게 짜여 세 번 혹은 네 번의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절차가 번거롭게 진행되는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의 서사적 관심이 크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미칠 충격을 완화해 주는 기능도 있다. 먼저 이도령은 남원에 곧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임실 부근에서 일단 머물며, 밭에서 일하는 노인들과 수작을 통해 춘향의 감금 소식을 듣는다.

백발가를 부르던 농부들은 철모르는 말을 한다며 이도령을 심하게 힐

유용한 판단 기준을 제공해 줄 것이다.

19) 어사또 행장을 차리는데 모양 보소. 숫사람을 속이려고 모자 없는 헌 파립에 벌이줄 총총이 매어 초사 갓끈 달아 쓰고, 당만 남은 헌 망건에 갓풀 관자 노끈 당줄 달아쓰고, 의뭉하게 헌 도복에 무명실 띠를 흉중에 둘러매고, 살만 남은 헌부채에 솔방울 선추 달아 이광을 가리고... <춘향전>, 176면.

난한다. 여기에서 이도령은 새로운 사태에 대해 인지하게 된다. 그러나, 농부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서지 않는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곧 이어 편지를 가지고 서울로 가는 아이를 등장시킨다. 하지만 편지를 가지고 서울에 가던 아이에 대한 서사적 관심은 그것으로 끝난다. 그 아이가 서울에 갔는지 아니면 이도령의 말을 듣고 서울 가기를 포기했는지에 대해 아무 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그러나 편지를 가지고 가는 아이의 등장은 서사적인 의미가 크다. 아이의 등장은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도령이 춘향의 진심을 편지를 통해 확인시키는데 서사적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²⁰⁾ 따라서 서사적인 두 번의 확인이 있는 셈인데, 첫 번은 하나는 백발가를 부르던 농부들에게서 간접적으로 춘향의 소식을 확인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아이의 편지를 통해 이도령이 직접 춘향의 진심과 현재상황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편지의 확인도 간접적인 방법이고, 아이도 타인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세 번째의 확인 작업은 남원에 들어서서 이루어진다. 앞서의 두 사건은 남원과 가까운 임실에서서의 일이다. 남원에 들어선 이도령은 오작교 밑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이 주고받는 말을 듣고 다시 춘향이 처한 상황을 인지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도령은 춘향의 집을 방문하여 월매가 춘향의 억울한 옥살이에 탄식하며 기원하는 말을 듣고 사태를 분명히 파악한다²¹⁾.

오딧세우스는 여신 아테네의 안내로 자신의 궁성과 멀리 떨어진 포르퀴스 포구에 상륙한다(오딧세이아 13장). 거기에서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간단하게 듣는다. 이것이 일차 확인이다. 그리고 자신의 충직한 부하인 돼지지기 에우마이오스를 만나, 아테네

20) 또 하나의 서사적 의미는 아이가 암행어사 출현을 알려, 곧 닥쳐올 상황의 반전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 점은 다음 절에서 다룬다.

21) 편지 사건은 <남원고사>에도 나오며, 이도령이 춘향의 진심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

여신이 말한 사실을 2차로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아들 텔레마코스를 만나 아내의 구혼자들이 50명이 넘으며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인지한다. 따라서 두 작품에서 주인공들이 자신의 아내나 연인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 자신에게 닥친 불행한 현실을 인지하는 데 세 번의 단계를 거친다. 즉,

<춘향전> : 농부 → 편지를 전하는 아이/ 빨래하는 여인들 → 월매(춘향 모)

<오딧세이아> : 아테네 여신 → 에우마이오스(돼지지기) → 텔레마코스

순서로 전개된다. 주인공은 장모나 아들을 만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간혀 있는 아내와 연인을 만난다.

처음으로 주인공에게 사실을 알려주는 이는 주인공과 전혀 다른 위상이나 층위를 가진 주체다. 임실의 농부는 남원과도 떨어진 위치에 있으며, 주인공과 전혀 관련이 없다. 아테네 여신은 줄곧 오딧세우스를 보호하고 있으나, 인간이 아닌 신의 위치에 있다. 두 번째 인물은 주인공과 교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편지를 가지고 가는 남원의 아이는 춘향의 편지를 가지고 갈 만큼 소통이 가능한 사이다. 남원 지역에 사는 여인들 역시 춘향과 소통이 가능한 인물들이다. 에우마이오스는 오딧세우스의 충직한 부하다. 세 번째 인물은 주인공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인물인데, 현재 감금되어 있는 여인과 혈연적 관계가 있다. 따라서 인지의 방향은 자신의 가족과 전혀 관계없는 인물에게 현재의 불행한 사건에 대해 얘기를 듣고, 다음으로 자신의 가족과 소통이 가능한 인물이 등장하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족 범주에 드는 인물로 좁혀진다. 단계가 진행되면서, 사실에 대한 인식도 더 구체화된다.

이러한 단계의 설정은 두 가지의 서사적 목적을 갖는다. 먼저 주인공에 대한 서사적 배려다. 주인공들이 매우 사려 깊은 인물임을 보이도록 서사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도령이 바로 남원으로 오지 않고, 임실에 들러 남원의 사정을 청취하는 일, 주령막대 끌면서 시조 절반, 사설 절반하며 가는 아이의 노래도 놓치지 않고 듣는 일, 그리고 밤에 돌아다니며 순행을 하는 일이 모두 그의 신중함을 보인다. 오딧세우스는 아테네 여신의 안내에 따라 에우마이오스나 텔레마코스를 만나지만, 그들에게 행할 행동을 주문하는 데에서 신중함을 보인다. 또 하나의 목적은 불행한 사태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려는 의도다. 이것은 주인공의 신중함과 결부되어 있는데, 직접 불행을 목격하게 하지 않고, 세 번에 걸쳐 사태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주인공이 극도의 분노나 좌절에 빠지지 않고 지극히 이성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는 서사적 장치를 보인 것이다.

#3. 오직 한 사람에게만 자신의 정체체를 노출시키다.

이도령과 오딧세우스는 남몰래 목적하는 곳에 도착했으나,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나, 실수로 말미암아 오직 한 사람에게 자신의 정체체를 노출시킨다. 이도령은 춘향의 편지를 가지고 서울로 가는 아이에게 실수로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킨다. 춘향의 편지를 두고 이도령이 아이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마패를 보인 것이다²²⁾.

아이는 이야기 중반에 갑자기 등장한 후 사라진다. 단 일 회의 출연에 그친다. 조선조 소설에서 일 회만 등장하는 인물은 많다. 주인공이 위기에

22) 서로 옥신각신할 때, 옷 앞자락을 잡고 실랑이하며 살펴보니, 명주 전대를 허리에 들었는데 제기 접시 같은 것이 들었거늘 물러나며,

“이것 어디서 났소? 찬바람이 나오.”

“이놈! 만일 천기를 누설하여서는 목숨을 보전치 못하리라!”, <춘향전>, 185면.

처해 있을 때, 신이한 조력자가 나타나 그를 구원하고 사라진다. 하지만 <춘향전>에서의 아이는 위기와 별반 관계가 없다. 따라서 아이의 등장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자유 모티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아이를 만나지 않아도 이도령은 남원으로 갈 것이며, 거기에서 춘향을 만날 것이다. 하지만 그 아이의 등장은 이도령으로 하여금 농부들에게서 들은 얘기를 다시 확인하고, 현 사태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한다. 아울러 그 아이는 남원 일대에 암행어사가 왔다는 소문을 만들어낸 진원지이기도 하다. 이도령은 아이에게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면 목숨을 보전하지 못할 것이라 했다. 하지만 이도령은 밤에 순행할 때, 자신의 존재가 이미 암암리에 노출되어 있음을 안다²³⁾. 암행어사가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또 다른 서사적 진술도 없기에 소문의 진원지는 아이에게 수렴된다.

암행어사가 왔다는 것은 곧 반전이 시작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준다. 그러한 기대는 아이의 등장에서부터 시작되었으니. 단 일회의 등장이기는 하지만 아이는 서사적 반전을 예고하는 역할을 수행한 셈이다.

오딧세우스는 아테네 여신의 지시로 아들과 충직한 부하들에게까지 자신의 정체를 감추었으나, 유모인 에우뤼클레이아에게 노출된다(오딧세이아 19장).

#4. 여성이 꿈을 꾸다.

모든 이야기에서 그렇듯, 꿈은 예시의 기능을 갖는다. 춘향은 옥에서

23) “여러 군관님네. 아까 옥거리 배회하는 걸인 실로 괴이하네. 아마도 분명 어사인 듯하니 용모파기 내어놓고 자세히 보소!”

어사또 듣고,

“그 놈들 모두 다 귀신같도다!”

하고, 현사에 가서 들으니 호장 역시 그러하다.

앞의 책, 201면.

꿈을 꾸고, 맹인이 해몽한다²⁴). 페넬로페도 부정적으로 볼 꿈을 꾸었으나 길한 해몽을 듣는다(오딧세이아 19장).

#5. 주인공과 갇힌 여성이 밤에 만난다.

밤에 이도령은 옥으로 찾아가 춘향을 만나고, 오딧세우스는 걸인의 행색으로 밤에 페넬로페를 만난다(오딧세이아 19장). 그러나 여성들은 남자의 위상에 대해 전혀 모른다.

#6. 주인공이 수모를 당한다.

이도령과 오딧세우스는 남원과 이타카에 돌아오기는 했으나, 적대세력으로부터 수모를 당한다. 변학도의 잔치에 찾아가 술을 청하는 이도령에게 사령은 ‘우리 안전님 걸인 혼금하니, 그런 말은 내도 마오?’²⁵하며, 마지못해 가져온 것은 ‘모 떨어진 개상판에 닥채젓가락,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²⁶뿐이다.

오딧세우스는 거지 이로스와의 싸우고, 구원자들 중의 우두머리인 플뤼보스의 아들 에우뤼마쿠스와 말다툼을 한다(오딧세이아 17장).

#7. 주인공이 시험을 당한다.

운봉은 이도령에게 높을 고(高)와 기름 고(膏) 자의 운을 주어 시를 짓게 한다. 이에 이도령은 金樽美酒 千人血/ 玉盤佳肴 萬姓膏/ 燭淚落時 民淚落/ 歌聲高處 怨聲高 라는 시를 짓는다.

24) 단장하던 거울이 깨져 보이고, 창 앞에 앵도꽃이 떨어져 보이고, 문 위에 허수아비 달려 보이고, 태산이 무너지고 바다 말라 보이니, 나 죽을 꿈 아니오?. 앞의 책, 169면.

25) 앞의 책, 203면.

26) 앞의 책, 같은 면.

페넬로페는 오딧세우스가 사용했던 활을 내주고, 그것으로 열 두 자루의 도끼 머리를 통과하여 과녁을 맞추는 시험을 열면서, 그 시험을 통과한 인물과 결혼할 것이라고 공표한다. 구혼자들은 어느 누구도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지만, 걸인 오딧세우스는 자청하여 과녁을 맞춘다(오딧세이아 21장). 시험을 통과하면서 두 사람은 걸인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공 혹은 영웅임을 알린다.

#8. 주인공이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다.

이도령이 잔치에서 나간 후, 곧 이어 역졸들이 암행어사 출도를 고한다. 오딧세우스는 걸인의 옷을 벗고 자신이 돌아온 이타카의 왕임을 구혼자들에게 보인다(오딧세이아 22장).

#9. 가짜 주인공들이 처형을 당한다.

이도령은 변학도를 봉고파직한다. 오딧세우스는 구혼자들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문을 걸어두고 자신의 활로 적대자들을 사살한다(오딧세이아 22장).

#10. 상대방의 진면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도령은 옥에서 나온 춘향에게 어사또 수청 들기를 명령하나, 춘향은 듣지 않고 ‘어서 바빠 죽여주오’²⁷⁾라고 반항한다. 이에 어사또는 자신이 이도령임을 춘향에게 알린다.

페넬로페는 자신과 남편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물어 남편의 정체를 확인한다(오딧세이아 23장).

27) 앞의 책, 211면.

#11. 두 사람이 재결합하고 높은 자리에 오른다.

이도령은 서울에 올라 이조참의 대사성에 오르고, 춘향은 정렬부인에 봉해진다. 오딧세우스는 이타카의 왕권을 되찾는다(오딧세이아 24장).

5. 결론

<지하국대적제치설화>에서의 종자들, <김원전>에서의 김현충, <심청전>의 뽕덕어미, <춘향전>의 변학도 그리고 오딧세우스는 전혀 다른 평면 위에 서 있는 등장인물들이다. 그들을 하나로 범주로 묶어 이해하는 것은 가당치 않는 일로 보이기도 한다. 분명히 이 글은 그러한 무리함을 감수하고 출발했다. 하지만 그들을 동일한 평면 위에다 놓고 볼 방법을 없을까? 무리가 따르기는 하지만, 시각을 달리하여 인물의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시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분석된 인물들은 확연히 다르게 보이는 성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민담에서 보이는 가짜 주인공이라는 성격을 부분적으로 공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짜 주인공과 적대자는 남에게 부여된 가치(인간적 혹은 물질)를 탈취하려는 점에서 같은 악한의 범주에 속하지만, 행위의 범위와 그것이 미치는 파장은 다르다. 가짜 주인공의 성격은 탈취와 그로 인한 서사적 지연에 있다. 속임수를 사용하여 영웅을 부정적 상황에 빠트리고, 그로 인해 서사적 지연이 발생한다. 그 지연에 반전이 포함된다. 민담의 경우, 적대자의 납치 혹은 탈취 행위는 집단의 운명과 관련이 있지만, 가짜 주인공의 행위는 순전히 주인공 한 사람의 운명과 연관되어 있다. 그들이 등장하는 시점도 다르다. 적대자는 서사의 초반에 등장하여 평형의 상황을 파괴하지만, 가짜 주인공은 이야기의 중반에 등장하여 주인공에게 부여된

(부여될) 가치를 탈취하려 한다. 가짜 주인공의 등장으로 서사적 지연이 발생하고 이야기는 새로운 모험을 도입하여 풍성한 서사를 만들지만, 영웅적 행위는 전반과 비슷하게 진행된다. 민담의 구조와 상동성을 갖는 고소설에서도 양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가짜 주인공이 트릭스터 혹은 조력자의 기능과 복합적으로 결합하면서 서사적 상황은 달라진다. <심청전>의 경우, 뽕떡어미는 일정 부분 조력자의 역할도 하지만, 트릭스터로서의 역할도 담당하는 복합적 인물이다. 하지만 적대자의 범주에 속할 인물은 아니다. 그녀가 심봉사를 버리고 도주하면서 서사적 반전이 일어난다. 작품 초반의 비극적인 서사 국면이 골계적 국면으로 바뀐다. 양반의 페르소나를 쓰고 행동하던 심봉사의 숨겨진 골계적 인간성이 드러난다. <춘향전>의 변학도는 자신의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한다. 이러한 행위는 이도령의 개인적 가치를 빼앗는 가짜 주인공의 면모를 보인다 하겠다. 그러나 자신을 공격하는 춘향을 감금함으로써 적대자의 성격으로 바뀐다²⁸⁾. 춘향의 투옥은 부당한 정치 권력이나 완고한 신부 질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를 떠나 집단의 관심사이며 이념의 문제와도 관련된 것이다. 변학도라는 적대자를 물리치기 위해 이도령은 치밀한 귀환 준비를 하고, 그만큼 서사적 지연이 발생한다. 이도령은 변학도와 맞서 새로운 유형의 영웅상을 보인다. 천상적 질서의 도움을 입은 민담적 주인공이 반려자를 얻는 것과는 달리, 이도령은 정치적 권력을 사용하여 반려자를 구한다.

28) 이 점은 <오딧세이아>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난다. 초반에 구혼자들은 단순히 구혼이 목적이었지만, 세력이 커지면서 달라진다. 그들은 이타카 왕국의 재산을 마음대로 탈취하여 경제적 황폐화를 낳았고, 비록 실패로 끝나기는 했으나 텔레마코스를 살해하여 왕국의 몰락을 기대하기도 했다. 단순히 가짜 주인공에서 집단의 위기를 불러오는 적대자로 바뀐 셈이다.

<춘향전>과 <오딧세이아>는 추구하는 가치가 사뭇 다르다. 절개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권력과 맞서 투쟁하는 춘향은 조용히 앉아 시아버지의 수의를 만들며 구혼자들을 진정시키려는 페넬로페와 사뭇 대조적이다. <춘향전>이 춘향을 주인공으로 삼아 그녀의 인생 역전을 그리고 있다면, <오딧세이아>는 오딧세우스를 주인공으로 삼아 그의 복수극을 그린 이야기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도령과 오딧세우스가 무모한 구혼자들에게 접근해가는 방식은 놀라운 유사성을 보인다²⁹⁾.

기원전에 만들어져 전승되어온 <오딧세이아>가 언제 한국에 소개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1940년에 <오딧세이아>와 함께 읽히는 <일리아드> 상, 하권이 임학수의 번역으로 출간된 기록이 있을 뿐이다³⁰⁾. 20세기 초반 근대문학이 출발하고 많은 문학잡지들이 발간되었지만, 거기에도 <오딧세우스>에 관한 기사는 없다³¹⁾. 조선조에 그 이야기가 알려졌을 가능성은 더욱 없다. 설혹 조선조에 알려졌다 해도, 그것이 <춘향전>의 형성에 이바지했을 것이라는 추론은 온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춘향전>은 외국문학과는 거리를 두고 있을 하층 광대들에 의해 형성된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두 작품의 유사성은 전파론적인 해석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인간 심성의 동일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클루칸은 같은 이야기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보이는 것은 인간 심리의 규칙적인 반응의 결과로 풀이한다.³²⁾ 한 문화는 그 문화권 안에 갇힌 단자가 아니며 인간심성의

29) 본문의 기술에서 이도령과 오딧세우스가 적대적인 가짜 주인공에게 접근해 가는 행로가 길게 서술되어 이 글의 목적과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글은 가짜 주인공의 등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사적 환경의 변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긴 서술은 달라진 환경의 변화를 충실하게 보이기 위함이다.

30) 김병철, 『한국근대번역문학사 연구』, 을유문화사, 1975, 814면 참조.

31) 김근수 편, 『한국잡지개관 및 호별 목차집』, 한국학연구소, 1973 참조.

32) Clyde Kluckhohn, "Recurrent Theme in Myths and Mythmaking", The Study of

동일성이 비슷한 줄거리의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한 주장을 <춘향전>과 <오딧세이아>의 유사한 서사전개가 웅변해 주고 있다.

참고문헌

- <김원전>, 『한국고전문학전집』, 16집,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5.
<심청전>, 『활자본 고소설 총서』 6, 민족문화사, 1983.
<심청전>, 『국문학연구자료』 21, 박이정, 1999.
정하영 역주, 완판본 <심청전>, 『한국고전문학전집』 13,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5.
김근수 편, 『한국잡지개관 및 호별 목차집』, 한국학연구소, 1973.
김병철, 『한국근대번역문학사 연구』, 을유문화사, 1975.
박순호 소장 『한글필사본 고소설자료총서』 28권. 오성사, 1986.
설성경 역주, <춘향전>, 『한국고전문학전집』 12,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5.
손진태, 『한국민족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79.
최동현, 유영대 편, 『심청전 연구』, 태학사, 1999.
호메로스, 『일리아스/오딧세이아』, 김병익 역, 삼성출판사, 1976.
- V. Propp, *Morphology of the Folktale*,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1958.
A.J. Greimas, *Structural Semantics*, trans. by Daniel McDowell, Lincoln, Univ. of Nebraska Press, 1966.
Clyde Kouvchohn, "Recurrent Theme in Myths and Mythmaking", *The Study of Folklore*, Alan Dundes, ed., N.J. Prentice Hall Inc., 1965.

ABSTRACT

A Study on the Variation of the False Hero

Kim, Jae-Yong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the role of the false hero in the Korean narratives including folktales and classic novels. In the folktales, the false hero deceives the hero out of honor which is to rescue the princess out of the cave. As the result of the deception, the return of the hero is delayed and the story has to get a second start.

But in the novel like Shimchung-jeon, the false hero makes the hero a laughable man. In the Chunhyang-jeon, the false hero has the function of the opponent. So the hero has to rescue his lover who was sent to jail. His quest is the same as the hero of the folktale.

The return of Odysseus, the story scenes are very similar to those of Chunhyang-jeon. It looks exactly the same story in different cultures is the universality of the human mind.

Key Words false hero, Shimchung-jeon, Chunhyang-jeon, Kimwon-jeon, Odysseus

논문투고일 : 2012. 04. 18
심사완료일 : 2012. 05. 25
게재확정일 : 2012. 06. 05

